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5. 7

주간 달러/원 동향(4/28~5/2)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위안화 약세를 견인한 가운데, 수급적으로도 배당 역송금 수요와 결제 수요 유입 등으로 하단이 지지 받으며 상승 출발. 이어, 미 1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텍사스 제조업황이 5년래 최악이라는 소식과 미-중간 관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황 등이 확인되며 달러 약세가 탄력 받은 가운데 원화는 강세 전환한 국면
- 중반 들어, 한-미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 반영 속에 월말 수출 관련 달러 매도 확대 등으로 1,424.7원까지 저점을 낮춘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국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줄줄이 사퇴하는 초유 사태 등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의 신뢰 문제 및 미 행정부와 의 관세 협상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큰 폭 상승 했으나, 오후 들어 중국의 미국과의 무역협상 가능성 타진 등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 반영하며 연중 저점 경신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전주 후반 이후 중국과 무역협상의 우호적 기대감 반영 등이 원화 강세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여기에 대만 달러의 급격한 절상 움직임에 따른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도 환율 하락 추세에 영향을 다소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난 후반부터 급락세를 보임에 따른 '오버 슈팅' 가능성에 따른 결제 수요 유입 등이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8.5	1,442.8	1,405.3	1,405.3	-31.2

예상거래범위

1,375원 ~ 1,400원

유로·엔화 동향 (4/28~5/2)



유로화 동향

- 주초, 미-중 무역 협상 교착상태 속 뉴욕 금융시장이 전반적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미 재무부 2분기 차입예상치가 실제 감소했다는 소식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며 달러화 급락 속에 유로 강세 출발. 이어 미 민간 고용지표 등의 주요 지표 부진하게 나오며 달러인덱스 하락 반영
- 중반 들어, 미 1분기 GDP가 상대적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가능성이 일부 나타남에 따른 달러 강세 속 유로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미국의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성사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제조업 업황이 시장 기대를 상회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반영된 국면. 이어 주 후반, 미 4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 지속된 국면이었으나, 이내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반영 속에 달러 가치 하락 전환하면서 유로화는 강세 나타내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362	1.1425	1.1265	1.1295
				-0.0067



엔화 동향

- 주초, 지난 24일 미-일 관세 협상에서 베선트 장관이 엔화 환율 수준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에 따른 현지 보도와 이에 대한 일본 재무성 차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강세 흐름으로 출발한 가운데 금주 금정위에서 미 관세 정책 영향을 확인 후 차후 정책 결정을 위해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등이 강세 제한
- 중반 들어, 전일 '쇼와의 날' 휴장 이후 개장한 도쿄 환시에서 엔화는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 부진을 반영, 엔화 약세 흐름을 나타낸 후, 이어 주 후반, BOJ 금정위가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5월 미 고용지표 등 노동시장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달러 약세 전환한 영향 등으로 엔화 소폭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6	145.9	141.9	144.9	+1.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28~5/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중간 관세 정책에 대한 상호간 유화적 제스처에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반영되며 미 국채금리 상승 속 국고채 금리도 이에 대한 영향 및 외국인 국채 선물에 대한 강한 순매수와 국고채 장기물 입찰 경계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미 재무부 2분기 차입 실제치가 종전 예상치 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다소 약하게 장기물 입찰이 이뤄지며 기관의 10년 국채선물 매도 등의 수급 영향으로 상승 추세 지속
- 중반 들어,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및 한은 총재의 학술심포지엄에서의 '양적 완화' 검토 필요성 언급 등으로 국고채 시장 강세 압력 심화되며 금리 급락 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중간 무역 긴장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속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미국 고용지표 등에 경계감 혼재 등으로 강보합 출발. 이어 미-중간 무역 협상 관련, 뚜렷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갈등이 최고 우려 시점은 지났다는 시장 인식 등으로 소폭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국내 증시 휴장을 앞두고 정치적 일정에 대한 경계감 및 미 1분기 성장률 등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소폭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된 영향 반영하며 약세 출발했으나, 중국의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화 가능성 타진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으로 강보합 선에서 마감